

태풍피해 미자립 교회를 다녀와서



비가 내린 후에 아침 하늘은 그야말로 맑은 가을하늘이다. 높고 푸르고 예쁜 초가을 하늘이 깨끗해 보이면 서 기분이 아주 상쾌하기 그지 없다. 지난 8월에 한꺼번에 밀어닥친 두개의

태풍(볼라벤과 덴빈)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미자립 교회를 9월 5일(수)에 농어촌교회선교팀이 다녀왔다. 아침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 할 때는 비가 내리는 것 같더니 하늘은 맑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진성교회'와 완도에 있는 '달도교회'와 '갈무리교회' 3개 교회를 다녀왔다. 처음에 방문한 '진성교회'는 지붕이 날라가서 커다란 폭탄을 맞은 것 같이 지붕을 받치는 작은 나무들만 남아있어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였다.

어른과 아이들 합쳐서 20여명이 출석 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 교회보수가 끝날 때까지 작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피해가 너무 커서 건축비용 마련과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기를 합심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교회 지붕 붕괴되고, 교회 내부 천정이 파손되고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 배수로 막혀서 교회가 침수되어 피아노와 음향기구 반주기와 PDP TV등이 물에 잠겨 사용이 불가능하고 강한 바람에 교회 십자가 까지 파손이 되어 예배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교회 방문을 마치고 날아간 지붕을 보니 함께한 모두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함께 기도를 드렸다. 두 번째 방문한 완도 '달도교회'도 태풍으로 십자가 탑이 무너지며 지붕을 덮어서 수리를 하여야 하며 양식업에 종사하는 출석 교우들의 상념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모습 참으로 무거웠다. 세 번째로 방문한 완도 '갈무리교회'는 사택 지붕이 날라가서 목사 가족들 잠자리가 없어 7식구가 구멍 뚫린 지붕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을 세며 잠잘 때 태풍을 원망하기도 한다고 한다. 자연의 재해는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본 그들을 볼 때 가슴이 많이 아픔을 느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짧은 기도를 드렸다. "힘을 내소서.....용기와 지혜로 믿음을 가지면 많은 동역자들이 이 아픈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다."고... 태풍은 분명 외부 세계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하필이면 '우리들에게' 하는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한다. 기도하는 순간이 빛나고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고 절망하지 않는 하루가 하루가 있다면 세상이 빛나는데 태풍이 지나간 자리 마음의 빛을 추수리는 맑은 날 함께 갖기를 바랐다.

*진성교회와 달도교회와 갈무리교회는 주님의교회에서 도와주는 미자립교회입니다.

< 최재규 안수집사 >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奉仕(봉사)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 이며 (이사야 61:6)

2012년도 使役博覽會(사역박람회)가 시작되었다. 부르심에 합당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 奉仕(봉사)이다.

奉仕(봉사)의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 1) 하나님, 교회, 나라, 사회,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
- 2) 보상없이 도와주거나 섬기는 행위.
- 3) 주(주)안에서 섬기는 행위.
- 4)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

9월 여전도회 연합 월례회

9월5일 수요일 오전10시30분 1층 소예배실에서 12,3,4여전도회 연합 월례회를 가졌다. 전날 많은 비가 내려서 행여 모임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다행히 아침에는 맑은 햇살까지 비치며 날이 개였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거든' 이런 어린이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들을 특강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왜냐하면 특강강사 김철중 집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사님은 우리교회 4부 성가대원이고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학교 수님이다.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특강시간이 되었다. 오늘의 강의주제는 "하나님 중심의 경제교육"이었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자녀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한두가지만 소개 하고자 한다.

첫째 유대인의 자녀 교육 : 유대인은 아이가 자라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가지는데 그때 친지들이 돈을 모아서 2만달러(원화 2,300만원정도)를 아이에게 종자돈으로 물려준다고 한다. 티끌모아 태산, 해마다 불어오는 자기 통장을 보면서 아이는 꿈을 키워가는 것이다.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다. 미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보낸다고 한다.

둘째 우리의 경제관 : ① 정직해야한다 -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나라(잠 21:6)

② 성실해야 한다 -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 21:5)

③ 재무관리 -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마 25:21). 5달란트 남긴자.

④ 구제에 힘쓰자 -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 11:24)

다시 요약하면 "정직, 성실, 관리, 구제(나눔)에 힘쓰는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이다.

많은 회원이 강의를 듣고 세계적으로 눈이 넓혀졌다고들 하였다. 우리의 삶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황옥자 권사 >

청년부 여름수련회 : 아이.나.비(I.娜.Be)



청년부에서는 7월 16일(월)~18일(수)에 설곡산 다일공동체(경기도 가평군 소재)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나.비(I.娜.Be) : 비전을 찾아기는 GPS'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상익 교수님(장신대 목회상담학)과 김명운 목사님(수서교회)

의 강의, 각종 공동체 프로그램과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살전 5:16-18에 근거한 '기쁨[과거]·감사[현재]·기대[미래]'라는 틀거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찾아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세우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키고 이루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 이정민 전도사 >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_ 마 5:16

통 권 _ 제 307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 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9월 9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 빛낼 소중한 기회 - 1인 1사역 갖기, 2012 사역박람회

2012 사역박람회, 8주에 걸친 대장정

지난 9월 2일 주일 아침, 주님의교회 김마리아관 1층 로비에서 2012년 사역박람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사역박람회는 여느 해와는 달리,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주에 걸쳐서 열린다.

“사역박람회를 하루에 하다 보니,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르게 되더군요. 구석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성도여러분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역박람회를 담당한 유기영 목사의 말이다. 9월 2일에는 어린이교육분과와 청소년교육분과가 박람회를

열었고, 9일은 복지분과, 16일은 문화예술분과, 23일은 봉사분과와 반가운학교, 10월 7일은 미디어분과, 젊은부부분과, 양육분과, 청년분과, 14일은 예배분과, 소그룹분과, 상례위원, 국제선교센터, 21일은 국내선교분과, 28일은 북한선교분과와 해외선교분과의 순서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헌신, 성령님의 능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초석이다. “사역은 교회 안

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이며,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성경말씀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참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은사사역팀 이승일 안수집사는 말한다. 그동안 은사사역팀에서는 성도들의 달란트에 맞추어 알맞은 사역을 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은사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헌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세 가지 색깔 별로 10개 분야로 사역 분야를 나누어서, 성도의 특성과 관심에 따른 사역 분야를 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역박람회의 결과도 은사진단과 연결시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1사역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드러내는 길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박람회는 많이 하지만, 몇 주에 걸쳐서 하는 사례는 찾기 드물다. 보통 교회에서는 “사역은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있다. 2012년 1월 통계에 의하면, 총 등록교인 약 6,800명 가운데 약 1,100명 정도가 사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 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러다보니, 한 명이 어떤 경우에는 대 여섯 사역까지 맡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주차장, 식당, 사진 촬영, 급식 봉사 등 다양한 사역팀에서 활동하는 신형섭 집사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라고 말한다. 통계에 따르면, 사역자 중 가장 많은 분포는 남여 불문하고 단연 50대이다. 다음이 60대와 40대의 순이다. 30대와 20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힘든 직장생활과 육아에 바빠 미처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바쁜 시간을 내어 한 사역이라도 맡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역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박람회 첫 날 주일 늦게까지 로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이 팀장이 덧붙인다. < 편집부 >

9월 2일

어린이교육분과 / 청소년교육분과

아기,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아기정원, 어와나, 중등, 고등, 토요민음학교

9월 9일

복지분과

행정팀, 복지팀, 구제팀, 호스피스팀, 꿈나무
녹색팀, 장애인사역팀, 사랑나무팀,
어린이집지원팀, 전화상담팀

9월 16일

문화예술분과

1부 ~ 4부 찬양대, 미시오데이, 할렐루야
주요챔버, 미술, 사진, 성극, 기획지원

9월 23일

봉사분과 / 반가운학교

주방, 커피봉사, 주차안내, 서점, 도서관,
행정지원, 환경미화, 실만한물가, 결혼예식
반가운학교

10월 7일

미디어분과 / 젊은부부분과 양육분과 / 청년분과

기획· 정보, 함글함글, 도서출판, 홍보출
판, 홈페이지· 스마트방송국, 영상· 음향
사진자료, 2030젊은부부, 양육기획행정
새가족, 가정사역, 양육클래스, 피택자교육

10월 14일

예배분과, 소그룹분과 상례위원, 국제교육선교센터

예배부, 안내부, 새벽기도팀, 세례팀
통역팀, 중보기도팀, 기획, 행정, 양육
은사사역, 상례위원, 국제교육선교센터

10월 21일

국내선교분과

행정, 군경선교, 농어촌교회선교, 도시개척
교회선교, 기관선교, 교정사역, 법조, 의료
스포츠사역, 주한외국인선교, 이민용
유소년축구, 영어예배

10월 28일

북한선교분과 해외선교분과

선교행정지원, 하나원사역, 북한주민돕기
북한이탈주민사역(국내외), 행정총괄
중보기도, 비전트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유럽, 케냐, 해외선교

주간 목회력

<2012 항존직 후보자 선거 일정>

- 9.9(주일) 오후 2시반~3시20분 (대회의실)
<2012 하반기 성인 입교 및 세례예식>
- 신청 : 9.16(주일) / 1층 안내데스크

<사역박람회 1인 1사역 갖기 운동>

- 9.9(주일)~10.28(주일) / 1층 로비
<제1기 미션퍼스펙티브스 훈련>
- 9.27(목) 오후 7시~10시반

<겨자씨인도자 모임 시작>

- 9.12(수) / 오전, 저녁반별로
<제10기 싱글매칭학교 (돌싱 재혼편)>
- 9.15~10.6 매주토 / 오후 1시~8시

2012

교육
목회원

여름
캠프

하늘씨앗(영아부) 여름성경학교

하늘씨앗 영아부는 제일 먼저(7월8일) 여름성경학교를 시작 하였습니다. 3세 미만의 아기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 으로 예배와 찬양, 기도, 성경공과, 인형극, 신체활동, 음율활동, 맛있는 간식과 점심식사 등 총 4시간 정도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아1부와 영아2부가 연합하여 함께 한 2012여름성경학교는 <세상을 환하게 "반짝아이 씽씽">이란 주제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작은 사고도 없이 기쁨으로 준비된 시간을 알차게 채웠던 행복한 특별예배였습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께.

< 영아2부 총무 최호성 >



담쟁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2012년 여름성경학교는 7월 29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재미있는 만들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



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참여 인원이 30%정도 늘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성경학교와 함께 열린 부모학교에서는 'feel 通' 이라는 주제로 장신대 이상억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도 너무 좋았지만 질의 응답시간이 1시간이나 될 정도로 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풍성한 여름 사역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치부 이호진 전도사>

썩트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수님 안에서 더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하
특히 '반짝마을' 에선 어두운 터널을 용감
들이 예수님께 축복기도와 선물을 받았습
사고 없이 하늘나라 잔치가 되게 하신 하
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빛
네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을 뿌립니다. < 유아2부 교사 유은하 >

포도나무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29일, 유년부는 안성 너리굴문화마을
떠났습니다. 2박3일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
는 주제로 성서학습과 다양한 놀이학습을
일을 보내며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아
둔 아픔과 소망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
석한 모든 교사와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말
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
을까 상상해 봅니다. < 유년2부 교사 박현숙 >



햇살뜨락 (초등부) 여름캠프

나는 세상의 빛~"
트네 예배 중에 들
었던 반짝아이 찬
양과 알록달록 풍
선으로 꾸며놓은
썩트네실은 엄마
와 떨어지기를
무서워하는 아이
들에게는 호기심
치는 곳이었습니
다. '반짝마
콩마을', '남남
콩마을', '반짝마
이들은 빛이신 예
수를 보냈습니다.
하루를 보냈습니
다.
나에게 감사를 드립
으로 살아가는 썩트
오늘도 기도의 씨앗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라는 주제 아래 7월 28일~31일 용인 한터파크로 햇살뜨락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맑은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고, 장난꾸러기인줄만 알았던 아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붉어진 눈시울을 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를 외치며 캠프를 마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함께 숨 쉬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등2부 교사 김수연〉



아름드리 (소년부) 여름수련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주제로 원주청소년수련원에서 1박2일, 141명(교사 42명, 학생 99명) 참석의 소년1,2부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를 배우며, 말씀과 큐티, 신나는 찬양과 율동과 게임을 하고, 힐링드라마를 통해 가정과 학교생활 중에서 경험한 상처를 마스크를 통해 표현하고, 캠프 파이어 때는 각자가 그린 마스크를 십자가 위에서 태움으로 갚진 치유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세족식 시간, 교사들의 섬김으로 존귀함을 받은 학생들의 그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리나 행복해하는 표정들은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년2부 교사 전민주〉



팝콘트리 (중등부) 여름수련회

로 여름성경학교를
는 빛과 소금'이라
진행했습니다. 2박3
이들이 마음에 담아
어 행복했습니다. 참
숨에 집중하고 기쁨
소를 보이지 않으셨

샬롬!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었던 팝콘트리 중등부 여름수련회는 ‘온 맘 다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플퍼즐 성

경공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기질을 알고,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특강〉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발견했으며, 〈저녁집회〉를 통해 ‘온 맘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날 〈스페셜 타임〉에는 All IN JESUS 찬양팀 친구들이 인도하는 찬양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부쩍 성장한 중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세대, 즉 이 땅의 청소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은혜 나누며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등부 심진희 목사〉



비전트리 (고등부) 여름수련회

저희 비전트리 고등부는 7월29일~31일 2박3일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은행나무연수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진과 같이 즐거운 게임을 통해 서로가 더 친밀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찬양과 예배속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비전트리 공동체를 위한 축복을 더해주시심을 느끼는 감사함의 시간이었습니다. 학업 때문에 가장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만나는 2박3일을 보냈습니다. 벌써부터 겨울 수련회가 기다려집니다! ^^

〈고등부 교사 신성찬〉



Kenya_케냐



해외 교육선교 위한 기반 확충 _ 케냐, 베트남 선교교육기관과 양해각서 교환

주님의교회에서는 그동안 교육선교를 지향하며 다양한 경로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여름 비전트립과 함께, 케냐와 베트남의 선교 기관과 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지난 7월 27일 비전트립팀과 함께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케냐 동아프리카장로교대학교를 방문한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와 동 대학 부총장 폴 문가이 음부구아 교수는 아프리카 내 기독교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독교 교육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케냐동아프리카장로교대학교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갈 것임과, 주님의교회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밝히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또한 8월 12일에는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베트남 남북음주의 총회를 방문하고, 총회장인 타이 포웅 트루옹 목사와 함께, 베트남 남북음주의 총회가 베트남의 기독교 선교 확장을 위한 기독교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에 주님의교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밝히는 양해각서를 교환하였으며, 지원의 규모는 차후 별도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 편집부 >

2012년 여름, 비전트립후기

_ 케냐, 키르기즈스탄, Z국, 베트남



2011년 7월에 제1회 케냐 비전트립팀 11명이 나이로비 근교와 마사이족의 거점도시인 나록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사역을 하였다. 이후 케냐팀은 매달 모여서 케냐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였고, 12월에 '주님의교회 아프리카팀'이 신설되었다. 올해는 의사 3명과 약사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작년의 선교지를 다시 찾았다. 작년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문제점이 개선되었고, 진료팀과 교육팀으로 두 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하니 효율이 배가되었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과 비품이 미리 준비되었고, 기증물품과 선물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마련하였다. 팀원들은 직접 현장에서 봉사를 하였지만, 해외중보기도회는 우리와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해외선교위원회는 신생팀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사이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의료사역은 작년의 2배에 이르는 600여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현지 성도들과의 협력 작업이 이루어졌고, 간단한 수술도 하였으며 필요한 약품도 무료로 주어졌다. 교육팀은 슬럼가의 탁아소 한 곳과 두 곳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울동과 찬양으로 함께 놀아주었으며, 올해는 함께 식사도

하였다. 우리가 방문한 곳의 풍경은 학예회나 운동회 같기도 하고 마을잔치 같기도 하였다. 아이들도 즐겁고 우리도 즐거웠다. 남녀 고아원에는 각각 튼튼한 그네를 설치하여 주었고, 가족공예 기술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고 축구공에 열광하였으며 가족공예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작년엔 인기가 최고였던 물품이 축구공이었는데, 올해에는 축구공은 물론이고 스카볼, 비치볼, 농구공, 탕탱볼까지 가져다주었다. 향후 케냐의 FIFA랭킹이 우리보다 앞서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유쾌한 반성도 있었다. 우리의 방문과 선물에 기뻐한 마사이지역 보건소 옆의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전통음악과 울동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이들도 감사했고 우리도 감사했다. 작년과 같이 동아프리카 장로회 대학을 방문하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다. 아프리카에는 생소한 기독교교육학의 씨앗이 발아되고 성장하여,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과 자활과 번영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좋은 차와 고급 스런 주택과 품질이 우수한 좋은 상품들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로비의 외곽과 지방에는 질병과 실업과 가난 등에 찌든 슬픈 삶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는 곳이다. 우리는 나이로비의 슬럼가와 가난한 시골을 넘어, 그보다 더 가난하고 더 척박하며 복음을 접하지 못한 아프리카를 보아야 하리라. 나이로비와 마사이지역에서의 빠듯한 일정 뒤에는 사파리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은혜'도 있었으며, 낙타와 악어와 타조 등의 풍미를 즐기는 '기쁨'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었던 것은, 같은 믿음 안에서 만난 케냐인들의 눈빛에서 느낀 은혜와 기쁨이다. 이번 사역팀의 합류로 '주님의교회 아프리카팀'은 더욱 커졌고, 이제부터는 다시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것이다. 작년부터 만나는 아프리카팀원들이 다짐하는 사항이 있다. 아프리카팀은 다녔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다녀올 사람들의 모임이다. 누구나 팀에 들어와서 기도·활동·후원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 홍완식 집사 >

Z

_ Z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_마 5:3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선교에 관심이 많지 않아, 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에 비전트립은 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대학졸업 후 5년 동안 바쁜 사회생활로 피폐해진 마음에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Z국 비전트립을 신청하게 되었다.
Z국 비전트립은 땅 밟기 사역과 꽃밭이라는 곳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일정이었다. 꽃밭은 상황이 위험하고 불안한 지역으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꽃밭에 가서 내가 나눠주는 것 없이 오히려 그곳 사정을 보고 너무 우울해지거나 영적으로 눌린 내 모습이 전해지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었다. 떠나기 전 사전훈련을 받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그 만큼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눌리고 시험도 받을 수 있으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에 조금은 안심이 됐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밭 사역지 외에 다른 일정은 땅 밟기를 하며 둘러보는 것으로 대부분 도시였고 좋은 경치를 가진 곳도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Z국으로 출발했다.

Z국의 국경지역 도시 양 쪽의 너무 다른 개발 모습을 보며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마음과 국경지역의 긴장감 속에 땅 밟기를 하고 셋째 날이 되어 경치 좋은 곳에 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느끼며 긴장감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좋은 경치를 보면서도 마음이 평안해 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곳은 경치를 돈으로 팔고 있었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속이고 발뺌하는 그곳 사람들로 인해 마음속에 의심, 불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 다음 날 가게 될 꽃밭에 이런 마음 상태로 가서 어린이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이튿날 꽃밭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밖에 나와 호기심 어린 밝은 얼굴로 환영해 주는 모습이 우리가 온 것이 반가운 모양이었다. 그 반가워하는 얼굴을 보니 마음도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Kyrgyzstan_키르기즈스탄



즈드라스(트)부이쎌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갔었고 2년 전에도 갔건만 아는 러시아어는 이말 한 마디 밖에 없다. 그래도 비전트립은 신난다. 말은 다르지만 몸에서 즐거움과 반가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은 몇 년 전부터 보던 아이들이 많다보니 반갑기 그지없어 보자마자 허그하는 아이들도 많다.

올해2월 비전트립 팀장제의를 받고 2주간 고민하다가 손영익집사에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내심 걱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마는지 하는 생각 속에 본격적인 비전트립 교육이 진행되고 기도모임과 팀 모임으로 팀웍을 다져가고 있었다.

특별히 이번 비전트립은 중등부 어와나 트렉팀의 구성으로 인하여 장로님과 부장집사님 이준엽전도사와 교사들,,,팀장인 나를 포함해 더욱 기도하게 만들었고 부모들의 동참과 아이들의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한 마음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비전트립은 참여하지 못 하지만 모금을 위한 차(tee)판매에도 함께 해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팀의 모습과 예산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물자를 채우시고 모든 팀원들에게 찾아오셔 모든 것의 계획은 인간이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한분이시라고 강하게 느끼며 준비를 마치게 하셨다.

이번 비전트립은 직항편으로 인하여 왕복 10시간정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으며 특별히 출발하기 이틀 전 비자면제가 확정되면서 각자에게 70불이라는 현금도 보너스로 받게 되었다. 모두들 하늘나라의 무비자라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한다.

첫날 우리는 작년의 추위로 인한 고생이 기억나비록 작년에 고생은 했지만 “이곳에 오게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번 팀에 충분히 느끼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날씨는 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초가를 날씨를 주셨다. 첫째 날은 아이들의 언어로 인한 어려움은 사라지고 본격적인 친해지기 구약프로그램을 통한 팀웍에 집중하는 모습은 이곳의 아이들이나 주님의교회 트렉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모두가 잘하였지만 몇몇 아이들은 러시아어로 식사 전 말씀암송(일명식전암송)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특명이 내려져 러시아어에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도 팀원의 식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내게 이번 비전트립의 팀웍에 팀장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하며 먼저 술선수범하지 않는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

3년차 사진사역을 통해 3박4일의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둘째 날부터는 촬영과 인화를 동시에 진행하며 지금의 이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 키르기즈스탄을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이곳의 추억을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며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곳 키르기즈스탄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중



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타지키스탄 등으로 둘러 쌓여 있는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다. 주변 정세가 독재를 이어가고 민족주의와 이슬람의 지원으로 인하여 인접 국가에서는 선교사 및 목사들을 추방하고 있어 이곳 키르기즈스탄에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기에 이곳 사역은 우리가 섬기고 이 나라를 기독교역사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이곳 키르기즈스탄은 유일하게 민주주의로 인한 대통령의 선출로 인하여 지금은 급속도로 개방과 안정을 유지되어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와 행동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이제 선택하면 된다. 그 선택이 옳고 그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순종하여 말씀대로 준행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주님의교회 어와나 트렉팀을 귀히 여기셨다. 16명의 어와나 믿음의 전사를 믿음의 시개척지를 정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야를 갖는 믿음의 자녀인줄 믿는다. 우리아이들 모두를 사랑한다. 2012년 어와나 비전트립을 통해 10년 20년 후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다. < 최재호 집사 >



하나님의 집이어서 그런지 낯설었던 마음도 집에 돌아온 것처럼 평안해졌다. 사랑을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나보다 순수하게 자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줄 알아 오히려 미숙하고 이기적이게 사랑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아이들의 어머니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곳 자매들 중엔 얼마 전에 감옥에 붙잡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딸이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저녁에 팀원들이 모여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곳 사람들보다 바쁘게 세상에 치여서 사는 우리가 더 불쌍한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기쁨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 질 때, 세상의 기쁨에 마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전트립이 끝나고 내가 확 변했거나 내 마음이 그 분들처럼 가난해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과 또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내가 노력해서 준비를 잘해 무엇인가 하고 오려던 그 곳에서 난 아무것도 잘 하지 못했는데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은 팀원들과 그 곳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곳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또 그곳에 항상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청년부 13기 조소은 >

Vietnam_ 베트남



베트남 1팀

베트남 1팀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의 남부 호치민시에서 서남쪽으로 100km 떨어진 Vinh Long省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박원호 담임목사와 공광승목사, 유성훈목사를 포함해 총 44명이 떠났으며 팀은 6명의 의사, 2명의 약사, 2명의 간호사와 치위생사 및 가족 도우미로 구성된 의료팀, 10명으로 구성된 이미용팀, 청각장애우팀과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사역팀, 그리고 진행팀으로 구성되었다.

사역은 현지 최병관 선교사의 인도 아래 선교사 자녀, 함께 사역하는 유선교사 가족, 한국학생 및 여러 베트남 학생들의 통역과 봉사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사역은 매일 다른 곳을 방문하는 이동 진료, 봉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편안호이, 미퓍, 그리고 짤호이 지역을 각각 방문하였다. 현지의 베트남 인민위원회는 저희의 봉사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반겨주었으며 많은 협조를 제공하였고 감사패를 전달해 주었다. 이러한 협조에 힘입어 의료팀은 사흘 동안 약 800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진료를 받은 주민은 대개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는데 진료와 약을 제공 받고 많이들 감사해하였다.



이미용 사역과 어린이 사역은 그간의 오랜 봉사로 좋은 팀워크를 보이며 잘 진행되었는데 이미용 팀에서는 주민들에게 커트와 네일아트를 제공하였고, 어린이팀에서는 풍선아트, 네일아트, 색칠공부, 단체줄넘기 및 선물 전달 등을 하였다. 어린이사역팀의 선물 대방출 때에는 수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티셔츠와 크레파스 등의 선물을 받고 해맑은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날은 빈롱성내 초등학교에서 약 120명 학생에게 노트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사역기간 동안 모두 건강한 가운데 즐겁게 봉사하였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팀원, 청년과 어린 학생들이 모두 어울려 봉사하고, 가족들이 같이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큰 감동이었다.

2012년 여름 비전트립을 통하여 참여한 모든 팀원이 큰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갈 것으로 확신하며 주님께서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길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사역에 대하여 기도해 주시고, 헌금과 물품을 기증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용규 집사 >

베트남 2팀

8월 12일부터 17일 까지 5박 6일간 베트남2팀(청년부, 중등부, 고등부)으로 해외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다. 출국 전부터 매주 팀 모임을 가지며 베트남의 의식주, 종교, 민족과 역사 등에 대하여 공부하였고 베트남 땅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다.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준비한 것들의 미흡함이 보였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베트남으로 향하였다.

베트남 2팀은 빈롱지역에 방문하여 집짓기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였다. 빈롱은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마을이다. 그곳의 극빈층 네 가정에게 집을 지어주고 송아지를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학교 두 곳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해주었고, 간단한 게임과 풍선아트 및 페이스 페인팅을 하며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빈롱 축구팀과의 친선축구, 빈롱 교회 방문 등을 통해 베트남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베트남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나에게 가장 간절히 기도제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나의 눈빛, 몸짓, 표정과 행동 등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트남으로 가기 전부터 내가 만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신 것 같았다. 집짓기 사역을 할 때 만났던 동네 주민들, 학교에서 만났던 수많은 어린이들,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축구 선수들까지... 고작 인사와 이름을 주고받는 정도에 불과한 베트남어 실력이었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 팀원들도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환한 미소로 함께할 수 있었다. 나라와 언어는 달랐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물론 베트남 2팀 역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들을 통해 흘러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베트남 사람들 마음에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중보 해야 함을 느꼈다. 집을 지어주고 선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큰 선물로 베트남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5박 6일 간의 짧은 베트남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행복했다. 왜냐하면 베트남 땅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보았고, 또 앞으로 해주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준비한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부족하였든 모든 사역을 떠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서 목장갑을 끼고, 사탕을 들고, 학용품을 들고, 부족한 베트남어를 하며 그 땅에 서있을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전능하고 완전하신 역사의 순간을 베트남2팀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사역 현장으로 초대해 주시게 감사드렸다. 현지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최병관 선교사와 그 가정, 김덕규 선교사, 통역으로 섬겨준 현지 대학생들, 각 사역마다 만난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 헤어질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너무나 그립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베트남을 계속 사랑하고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해외선교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청년부 20기 강하은 >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부르심의 길

권대선 목사

‘부르심’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감동의 단어이며 동시에 그 길을 과연 내가! 어떻게 걸 어갈 수 있지! 고민의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르심’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저에겐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시절 이 ‘부르심’이 하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나만의 생각인지를 분별하기위해 산속 기도원에 올라가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던 일.....

신학교에 입학하고서도 ‘부르심’의 확증을 위해 강의실보다 기도실을 더 많이 찾아가던 일.....

목사안수를 받으며 이 땅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 중에 나를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은 무엇인지 고민 하던 일.....

저에게 있어 ‘부르심’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동과 그 길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복합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그 ‘부르심’의 감동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확실한 응답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처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는 누구도 저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목회를 권유하셔서 고민하던 저는 담임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확증 때문에 고민할 때는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던 벗들과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저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를 같이 다니고 심지어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며 저를 이끌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목회자의 근본적인 자세를 배웠고,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멘토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 저는 목회에 필요한 실재적인 설교, 강의, 선교, 제자훈련 등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길에서 저

부르심의 길에 서서 _09

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입니다. 가족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마르지 않는 에너지원이며, 제가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게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가 걸어가고 있는 부르심의 길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어 저를 훈련시키시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목회가 해볼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愛)의 동행(同行) _2012년 사랑나무 여름 수련회에서

사랑나무 친구들은 꿈과 자유를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순수하게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하며 실천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2012년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찾아 왔으며 7월 27일(금) 그리고 28일(토) 사랑나무 여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여행(시편 104:24)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여행을 떠나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찬양 문화여행은 우리친구들의 힘찬 손짓과, 몸짓이 그대로 어울려져서 활기찬 찬양을 하나님께

온몸으로 돌렸습니다. 사랑나무 아이들의 찬양을 들어 보셨는지요? 천상의 소리를^^ 호빵맨 만들기과 까나페 만들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을 그대로 간식에 장식하여 먹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꼭 드시러 오세요. 만들기, 그리기, 작은 운동회, 물놀이는 정말 신나는 놀이 여행의 꽃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뛰어 놀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같이 뛰어

놀아 보세요.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구리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조상들의 열이 깃들여 있는 현장 체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코스까지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자리를 지켜주고 즐



거운 여행이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랑나무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은숙 전도사 >

